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협의회의 역사 (II)

NCKPC 성장기의 한인교회 성장과 사역 (1984-1996)

통합총회와 미국 전역을 포함하는 전국한인교회협의회의 출범

남북전쟁으로 122년 동안 갈라져 있던 미국연합장로교와 남장로교회가 1983년 6월 10일에 애틀란타에서 역사적인 통합총회로 모여 미국장로교 (The Presbyterian Church USA)가 되면서 양교단에 속하였던 한인교회협의회도 통합에 착수하였다. 연합장로교 한인교회협의회를 대표하여 정용철 목사와 천방욱 목사가, 남장로교 한인교회협의회를 대표하여서는 송수석 목사와 김선배 목사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84년 5월 25-27일에 미주 최초의 한인장로교회인 나성연합장로교회에서 역사적인 통합총회를 개최함으로 미국 전역을 포함하는 미국장로교 전국한인교회협의회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Council, PCUSA)가 출범하였다. 통합총회 회칙에 명시된 목적에는, 교단의 선교 참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공동관심사와 사업의 협의 수행, 한인교회 권익 옹호와 지도력 개발, 타종족 교회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개발과 사업수행이 강조되었다. 회장에는 천방욱 목사, 총무에는 김선배 목사가 선출되었다. 통합 무렵에 총회산하 한인교회의 교세는 조직교회 123개, 개척교회 54개, 미국교회내 한인회중교회 3개로 총 180 교회였으며 활동교인수는 25,000 여명이었다.

성장기(1984-1996년)의 한인교회의 성장과 사역

통합총회(1984년) 이후 협의회가 25주년을 맞은 1996년에는 교단 산하 한인교회 수가 310 교회, 활동교인 34,500명으로 12년 동안에 130 교회가 증가하여 연 10개 이상의 새 교회가 개척되거나 영입되는 성장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배경에는 미국장로교 교단적 차원에서 행한 중요한 정책의 선언이나 활동을 통해 한인교회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와 한인교회들이 교단의 폭넓은 선교에 동참하면서, 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정책을 세워 추진한 열매라고 하겠다. 그 대표적인 주요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인목회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지역총무제의 실시

NCKPC 의 개척기에 미국연합장로교 총회 (1978)는 한인교회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한미목회 자문위원회” 설치를 승인하였다. 한인목사들을 포함한 교단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노력으로 1981 년부터 1990 년 초까지 동부, 남부, 중서부, 서부의 4 개 지역에 한인목회 총무 (consultant)를 두었으며 (동부: 신성국 목사, 남부: 최창욱 목사, 중서부: 현순호 목사, 서부: 김용준 목사), 이들의 사역을 통해 지역 교회들의 교회건물 사용, 목회자와 평신도 교육, 교단가입 지원, 교회학교 교사훈련 그리고 한인교회 개척에 많은 도움을 제공받았다.

2. 미국장로교 총회 본부에 한인목회실 설치와 담당 총무의 채용

1988 년 미국장로교(PCUSA) 총회 본부가 켄터키주 루이빌로 옮기고 새로운 총회선교부 (Presbyterian Mission Agency) 구조에 민종부(Racial Ethnic Ministry Unit)가 설치되고 그 안에 흑인계, 히스패닉계, 아메리칸 인디안 그리고 아시안계 회중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를 두었는데 한인교회는 아시안교회의 일부라는 정책으로 독자적인 부서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성장하는 1 세 중심의 한인교회를 위한 총회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인교회 지도자들의 노력과 특별히 남장로교 배경을 가진 미국장로교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종부에 아시안오피스와 별도로 한인목회실(Korean Congregational Enhancement Office)을 두게 되었고, 1988 년 8 월 15 일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를 섬기던 김선배 목사가 한인목회 총무로 역사적인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2016 년 8 월 은퇴하기까지 28 년간 김 목사가 사역한 총회 한인목회실은 NCKPC 와 긴밀한 협의와 동역을 통해, 특별히 목회지도력 개발과 훈련(새시대 목회연구회, 다문화 목회연구회, 학원도시 목회연구회, 개척교회 목회자컨퍼런스, 작은교회 목회자컨퍼런스, 인테리목사 훈련, 2 세 목회자 훈련), 개척교회 운동 그리고 한인노회 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한인노회 발전에 진력함으로 총회 차원에서 한인교회 발전과 성장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외에도, 한인목회실의 사역이 NCKPC 교회들의 발전과 성장에 미친 공헌은 지대하였는데, 총무 김선배 목사는 교회들의 담임 목사 청빙과정에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의 목회철학과 gift 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그들을 목회적 역량을 소신껏 펼칠 수 있는 교회에 천거해 줌으로써 많은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주었다.

3. 한국어 자료 개발과 보급

성장하는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1990 년에 총회 교육부에 “한국어 자료 개발실”(The Office of Korean Resource Development)이 신설되어 김춘자 목사가 총무로 취임하여 2016 년에 은퇴하기까지 헌신하였다. 개발실은 성경공부 자료인 “성서 발견”(Bible Discovery)을 번역하여 발행해 오다가 새 천년이 시작하는 2000 년부터는

한인 집필자들이 쓴 "말씀과 함께"(The Present Word)란 소구룹 성경공부 자료와 "구역예배 말씀"을 발행하였다. 한인교회 직분자들을 유능한 교회 지도자로 훈련하는 자료 개발이 시급한 과제였기에 "신앙고백서"(헌법 1 부), "규례서"(헌법 2 부), "충성된 종이 되는 길," "좋은 교사가 되는 길," "선택받은 봉사자," "공동 예배서," "현대 성서 주석" 등 많은 한국어 자료들이 출판, 보급되었다.

4. 미국장로교 총회의 예배실 완공에 주도적인 역할

미국장로교 총회 본부가 루이빌로 옮겨서 사무실 건물을 수리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총회 예배실로 정한 공간은 비워진 상태로 있었다. 이에 총회를 방문한 한인목회실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던 한인 목사들이 총회예배실의 완성을 기도로 결의하고, 남가주 한미노회를 통하여 예배실 완성을 건의하는 헌의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통과되어서 Chapel Completion Committee 가 구성되었다. 이에 NCKPC 를 비롯한 국내외 한인교회들의 모금과 교단내 독지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아름다운 예배실이 완공되어 1995년 9월 29일에 현당 예배를 드렸다. 이 일에 조영일 장로가 위원장으로, 천방욱 목사가 위원으로 수고하였다. 이 예배실은 초기 개척기부터 교단내 한인교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준 미국장로교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대표적 상징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5. 한인노회 설립을 위한 연구와 중서부 한미노회의 조직

1984년에 최초로 설립된 남가주/하와이 대회 내의 한미노회에 이어 더 많은 비지역 한미노회 설립의 필요성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조직을 제 21 회 NCKPC 총회(1992)에서 승인하였고, 연구보고서를 제 23 회 총회 (1994)에 제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993년에 제 205 차 미국장로교 총회의 승인을 얻어, 1994년 6월 24일에 15개 교회와 17명의 목사회원으로 링컨트레일즈 대회 내에 중서부 한미노회가 창립되었다.

6. 교단의 신학적 노선과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와 선언문 발표

미국장로교 총회는 1978년 총회로부터 시작하여 수년간에 걸쳐, 동생애지 안수에 대한 이슈가 총회에 제기되고 여러 차례 헌의안으로 제안되었다. NCKPC 산하의 한인교회의 대다수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동성애자의 안수문제가 교회의 발전과 전도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을 취해 오던 바, 1993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이슈에 대해 성서적, 신학적, 사회적 견해를 신중히 연구한 후에 동성애자의 안수를 반대하는 보고서와 선언문을 채택하고 산하 회원교회 뿐 아니라 교단 내 전체 교회에 발송하였다. NCKPC의 입장은 어느 소수 그룹을

“정죄”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교훈과 신앙고백의 개혁전통과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려는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7. 21 세기의 한인목회 비전과 전략의 설정

NCKPC의 성숙기를 마감하는 제 25 회 총회 및 전국대회가 1996년 7월 16-20일에 New Hampshire 주의 Manchester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5년간의 광야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며 “약속의 새 땅을 향하여”의 주제로 열렸으며, 21세기 새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목회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전국대회였다.

- 지난 25년의 발자취를 정리하여 25년사 (편집책임자: 최창욱 목사)를 출판하였다.
- 지난 25년의 성장을 거쳐 이제 ‘성인’이 되는 NCKPC가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미래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 간의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The Vision of NKPC For the 21st Century”를 제시하였다. 미래 목회의 전망, 교회 개척운동의 전개, 목회자와 평신도의 지도력 개발, 차세대 목회 지도력 양성, 정의로운 사회봉사와 참여 등 변화하는 새 시대에 부응하는 목회의 새로운 전략을 세워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꿈을 함께 꾸고 확인한 선언이었다.

다음 호에 <성숙기> 계속